

## 당찬 발걸음을 보는 기쁨

사천여 노동자의 뜻을 모아 황량한 황해가 한 귀퉁이를 다지고 다듬어 돌을 놓아 교사를 짓고 인재를 널리 모아 문을 연 지 다섯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그 동안 인향고등학교는 내외적인 많은 변화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젠 담장 주위에 심은 나무들도 알맞게 자라 있고, 여러 학생들이 사용하는 의자와 책상들도 적당히 손때가 묻어 있어 정겹습니다. 그리고 모진 바람만 휘몰아 가던 주위 환경도 하나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년 인향고등학교와 인연을 맺고, 어엿한 동량이 되어 삶의 진보와 웅비를 꿈꾸며 떠나간 졸업생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젠 전국 어느 대학이든 우리의 졸업생이 없는 곳이 없으며 지역사회 곳곳에도 인향인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인향이 있으며, 그들의 맥박 속에 인향의 숨결과 이념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향인 및 인향 가족 여러분!

나는 인향의 발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젊고 패기 만만한 많은 선생님과 인격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선생님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교육 현장을 밝히고 계시며,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땀 흘리면서도 묵묵히 지도부의 사업을 지지해 주고, 보다 발전적 교육 환경을 후세에게 마련하고자 애쓰시는, 실질적으로 인향의 설립 주체이신 4천여 항운노동조합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교육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인향의 두 주역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주역의 조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재단이사장 이강희

이는 학교의 전통 없음과, 산고의 진통이 채 가지지 않은 초기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2회까지 대단히 높은 진학률로 졸업생을 배출함으로 수십년의 전통을 가진 기존 학교들을 일시에 뛰어 던지고, 사학이 명문으로 가는 기초를 확고히 다짐으로 교육과 관계있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고, 지역 주민들은 인항에 대한 좋은 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 하고 기성의 성과에 대하여만 환호작약 할 수만은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단지 조용한 파문과 함께 출발을 했을 뿐이며,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로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발굴만이 그래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두뇌의 확보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이 잘 되어야 민족과 국가의 장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도 교육은 나라 발전의 중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어둠을 밝히는 햇불이고 삶의 지혜를 얻는 근원이고 주체적 자아 형성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인항은 잠시도 열정적 연구를 멈추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태와 안정을 바라지 말고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자양분을 섭취하여 비옥한 토양에다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재단은 그러한 인항의 모습에 언제나 박수를 보낼 것이며, 요구되는 교육적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밝은 미래로 가는 당찬 발걸음을 보는 기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밝게 새해를 맞으시고 모두 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